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www.103skcc.org>

<미사 및 성사안내>

주일 미사

토요 저녁 오후 7:00

주일 오전 7:30

영어미사 오전 9:30

 오전 11:00

평일 미사

화요일 오후 7:30

수,목 오전 9:30, 오후 7:30

금요일 오전 9:30

성모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30

고해성사 미사 전,후 30분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310) 218-8432 (신부님)

 (310) 218-8282 (수녀님)

혼인성사 6개월 전 신청

유아세례 1개월 전 신청

병자영성체 반장에게 신청

《 본당 연락처 》

사무실 (월, 화 휴무)

☎ (310) 326-4350 Ext100

FAX (310) 326-4360

주임신부 : 윤승식 모세

 Ext 106

전교수녀 : 박묘숙 프란시스

 Ext 102

중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 (310) 514-0000

평협회장 : 현석주 아오스딩

☎ (310) 594-9472

연령회 : ☎ (310) 569-3940

빈첸시오회 ☎ (323) 833-6436

※ 사무실 업무시간안내

주 일 : 8:00 ~ 17:00

월, 화 : 휴 무

수요일 : 9:00~12:00, 14:00~19:30

목요일 : 9:00~12:00, 14:00~19:30

금요일 : 9:00~13:00 1pm Close

토요일 : 9:30~12:30, 13:30~19:30

√ 미리 전화 주시고 방문 바랍니다.

대림 제2주일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교중	128	270	301	133
11시	131	261	287	129

오늘의 전례

입 답 송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 1독서 바룩서 (Baruch) 5,1-9

화 답 송 시편 126(125),1-2 가. 2 다. 3-4-5.6(◎ 3 참조)

-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2독서 필리피서 (Philippians) 1,4-6. 8-11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 음 루카 (Luke) 3,1-6

니케아 콘스탄티노 폴리스 신경

신앙의 신비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2022년 백삼위 성당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의 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0년부터 시작된 COVID-19로 우리의 일상은 전반적으로 제한되었으며,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 본당 설립 40주년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보내며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COVID 상황이지만 LA대교구의 방역지침 안에서 서품첫미사와 40주년 행사와 200주년을 마무리 하면서 본당의 신자들이 점점 더 함께 하고, 많은 신자들이 위드코로나 상황안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있지만, 25%의 신자는 아직도 함께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2022년 말씀과 성체에 집중하는 사목방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가톨릭 신앙을 떠받치는 두 개의 주춧돌인 '성체'와 '말씀' 위에 믿음을 굳건히 정초하도록 합시다. '성체'와 '말씀'의 샘으로 뿌리를 깊이 뺏으면, 아무리 별이 따라워도 생명의 잎사귀가 무성하며, 아무리 가물어도 줄곧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레 17,8 참조) 이렇게 성체성사와 하느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신앙인은 그리스도와 긴밀히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경이로운 생명과 힘을 얻습니다. 2022년에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통해 우리 믿음의 뿌리가 하느님께 깊숙이 내려져, 어떠한 역경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성체성사를 삶의 중심에 둡시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천이요 정점으로, 우리의 파스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음료'를 얻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주님을 받아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인 역시 영생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체성사는 주님께서 주신 다른 여러 선물 가운데 매우 값진 하나의 선물이 아니라 비할 데 없이 탁월한 선물입니다.'(「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11항 참조)

특히 자녀들이 성체를 중심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주 성체조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도록 합시다.(「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5항 참조)

둘째,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생활화합시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근원이자 인간 역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이정표입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서 거룩한 생명과 영감을 얻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신앙생활의 준비운동'이요, 신앙생활은 '성경의 연장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활동과 수고가 비로소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신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본당 공동체에서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과 모임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느님의 지혜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1코린 1,25 참조) 주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를 성경 안으로 부르십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경이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되고 하루를 마감하는 자물쇠가 되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건네시며 필요한 힘과 지혜, 용기 그리고 신앙을 키워주십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으며, 쓰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도 없고, 성경을 덮은 채로 성인이 된 사람도 없습니다.

셋째, 지구를 보살피며 살아갑시다.

물질주의에 매몰된 욕망으로 일구어낸 과도한 개발과 소비문화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된, '인간 삶의 터전'이요 '공동의 집'인 지구가 아파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극한적 폭염과 가뭄, 재앙적 산불과 한파, 파괴적 폭우와 홍수 그리고 위태로운 생태계와 쓰레기 문제 등을 빈번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구를 보살피고 살리는 일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훼손과 오염의 폐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COVID-19' 역시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구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현시대가 절박하게 요청하는 '시대적 징표'이며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찬미받으소서」, 49항 참조)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지구가 아름다운 생명력으로 넘쳐나도록 합시다.(한국 천주교 주교단,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2020.10.16.)

2022년이라고 COVID가 끝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오미크론과 또다른 변이 바이러스는 언제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먹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그 위에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COVID 상황이지만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도 없고 치유 받지 못할 아픔 또한 없습니다. 더욱 큰 믿음과 희망을 안고 아버지 하느님께 묵묵히 나아갑시다. 올 한 해, 본당 교우 모두가 '성체'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전능하신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갑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야고 4,8) 우리를 언제나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고 고통을 이겨낼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마침내 그분께서는 당신 약속대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며, 이 여정에 성모님께서도 늘 함께 해주십니다.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의 가르치심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대신 전달합니다.

2022년 실천사항으로 아래의 내용들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체와 함께
 - 주 1회 이상 미사와 성체조배 참여하기
 - 가족과 함께 미사 봉헌하기
 - 쉬는 교우 미사에 초대하기
2. 말씀과 함께
 - 성경 통독하기
 - 가족이 함께 성경 필사하기
 - 한 주간의 성경구절을 정하여 암송하기
3. 지구와 함께
 - 회칙 「찬미받으소서」 읽고 되새기기

 **전례봉사자**

이번주	토요미사	교중미사	낮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유지아 클라라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	정인욱 아오스딩	이민상 요한	박진수 스테파노
제2독서	김인경 유스티나	이순자 비비안나	박혜경 레나타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미사헌금(370명)	\$ 2,503.00
교무금	\$ 2,870.00
성전헌금	\$ 420.00
매일미사판매	\$ 605.00
지난 주 합계 :	\$ 6,398.00

교무금 내신분

강인모 구자운 권태만
김영숙 김일선 김정웅
김주량 김화영 박개순
박진숙 반정이 신애숙
위진록 이경태 이재용
장경숙 조상현 한인조

성전헌금 내신분

강인모 구자운 권태만
김주량 박개순

※2021년 교무금, 성전헌금 책정

교무금, 성전헌금 자동이체 신청은 사무실에 제출해주세요.



본당 소식

◆ **판공성사 안내**

대림시기 고해성사 : 미사 전, 후 30분
합동고해성사 : 12월 21일, 화요일 저녁 8시

◆ **대림시기를 위한 책 증정**

가정기도와 전례자료집, 대림판공용 생활교리 책을 1부씩 가져가셔서 대림시기에 읽고 실천해주십시오.

- ▣ 대림 제2주일 미사에 은퇴 성직자, 수도자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구역장, 반장 모임**

12월 5일, 11시 미사 후

▶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

일시: 12월 12일, 주일 1pm
장소: 친교장
대상: 레지오 전 단원

▶ **안나회 모임**

12월 12일, 낮 미사 후 / 공방 옆, BBQ

▣ **마스크 증정**

기증 받은 천 마스크를 미사 후 1인당 1팩씩 (마스크 12개) 나눠드립니다.

※ 봉헌권 사용 안내

세금 보고서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주일헌금 봉헌권을 이용하시면 헌금도 기부금에 포함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하신 봉헌권은 2차헌금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미사지양

- 평일 및 토요 미사** (연) 구순모, 김정재 안젤라, 김소화 데레사, 박덕기 카타리나, 박문규 프란치스코, 배성욱 크리스티나, 오기성 유재환 베드로, 이강희 윤일요한, 이근모 마리노, 이용식 베드로, 이인순 최옥선 클라라, 홍관 요셉,
(생) 김보민 이레네,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이순자 비비안나, 윤 다이앤 클라라, 이종민 요셉 이종원 베드로 & 이린다 아네스 가정, 최태훈 아오스딩 & 최희정 보나, 화요 성서그룹 회원
- 교중미사** 백삼위 성당 교우를 위한 교중 미사
- 학생미사** (생) 신용섭 비오, 신환희 비오, 송인선 안젤라 가정
- 주일 낮 미사** (연) 고준희 제임스, 권중호, 김매화, 김순예 안나, 김중환 야고보, 박종대 말구, 박주현 마리아, 박필레 세쿰다 & 박영춘 안토니오 박홍룡 요셉, 서정일 바오로, 손 석 스테파노, 송기분 수산나, 이근배 베드로, 이정숙 마리아, 조규원 윌리엄, 차유순 안당 수녀 차경식, 차준수 요셉, 차홍석 베드로, 체스카 김, 최상숙 세실리아, 최성자 마리아, 최 영 요셉, 패트릭 페피, 클라리스 머피 한명희, 한학수 바오로
(생) 권순길 세실리아, 김 용 스테파노, 김정순 비비안나, 김지원 임파콜라다, 김진우 사도요한, 김현빈 니콜라스 & 김현오 바오로 엄영숙 마리아, 윤요셉 & 황 마리아, 조갑제 & 조소영 수산나, 조영초 카타리나, 최상만 사비노, 홍석인 체칠리아

교우 업소록 주보 광고란은 본당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p>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 310-530-3010 3400 W. LOMITA BL TORRANCE, CA 90505 김충섭 마틴</p>	<p>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Body shop & Auto repair 종합정비 ☎ 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p>	<p>오 미카엘(명섭) 치과 ☎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p> <p>Happy Mind Body Spirit 이정훈 루카 / 한의원 ☎ 213-268-7838 1613 W. Carson St. #106 Torrance, CA 90501</p>
<p>상업용 부동산 상가, 아파트, 창고, 리스 및 매매 전문적 관리 부동산 개발 및 투자, 리모델링, value addition 컨설팅 마이클 송 310-940-2685 / BRE#01779355</p>	<p>수지 박 부동산 ☎ 310-897-0444 DRE # 01203910 / BERKSHIRE HATHAWAY 오랜 경험으로 부동산과 용자에 관한 모든 것 도와드릴</p>	<p>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 310-516-8282 조셉 홍</p>
<p>수호천사보험 장례플랜 / 장례보험 / 공영요지매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65+) / 건강보험 /여행자건강보험 전화: (310) 908-8823 CA Ins. Lic.#0G67882 Jay Lee 안셀모</p>	<p>후코이단 네이처메딕 1991 W. 190th St. STE 101 Torrance, CA 90504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 1-888-761-1188</p>	<p>베니스 안경원 ☎ 310-539-2449 23215 Hawthorne Blvd. #E Torrance, CA</p>
<p>크리스 리 부동산 ☎ 310-619-7763 아가토 DRE # 01405988 New Star Realty</p>	<p>수지 Choi 부동산 ☎ 310-408-0883 RE/MAX ESTATE PROPERTIES DRE # 00935665, 27년 경험</p>	<p>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p>
<p>현대 해운 해외이사전문 윤성진 안드레아 ☎ 310-763-0001</p>	<p>GRAND OPENIING 귀빈 이발관 남녀 헤어 컷 및 염색 전문 예약전화: 310-634-3333 / 310-702-7676 16229 S. Western Ave. #3 Gardena, CA 90247</p>	<p>주택용자 박경주 요아킴 재용자 ☎ 818-522-2933 NMLS #1762201</p>